
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내에서 환자 부담 가장 낮은 병원



1 박상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(오른쪽)과 김성은 방사선보건의료 2 영상의학과 최현욱 주임과장이 간암 환자에게 방사선색전술을 시행하고 있다.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·하위 10개 병원 [경실련 제공]

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적은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이 전국 233개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을 대상으로 '건강보험 부담실태'를 조사한 결과,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.8%로 전국에서 가장 환자 부담이 낮은 병원으로 나타났다.

상급종합병원 4곳, 종합병원 19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합병원 가운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.8%로 1위를 차지했다.

국립암센터가 77.8%로 2위를,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.1%로 3위를, 국립중앙의료원이 74.3%를 기록했다. 종합병원 군에서 최상위 4곳 모두 공공의료기관이었다.

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환자 부담이 낮은 배경은 정부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비용부담이 큰 암 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였고, 특히 신포괄수가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암 진료비와 고가의 항암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.

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8년 비교적 초기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많은 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.

이외에도 주기적 관리를 통해 고가·과잉·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,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꾸준히 적정 진료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.

〈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·하위 10개 병원 〉 (보장률 단위 %)

하위			상위		
순위	병원명	보장률	순위	병원명	보장률
1	동남권원자력의학원	80.8	1	국립암센터	77.8
2	국립중앙의료원	74.3	2	한국원자력의학원	75.1
3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3	국립중앙의료원	74.3
4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4	부산중앙병원	73.5
5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5	부산중앙병원	73.5
6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6	세인트앤드루병원	73.5
7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7	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	73.4
8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8	경로유리병원	72.5
9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9	부산세종병원	72.1
10	연세대학교의료원	73.5	10	대구의료원	71.7
평균		43.4	평균		75.5

3 건강보험보장률 (최고-최저)병원간 차이 : 52.5%p
환자의료비 부담비율 (최고-최저)병원간 차이 : 3.7배
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암센터에서 최근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간암 치료법인 동맥 경류 방사선색전술(TARE: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)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.

동맥 경류 방사선색전술은 2002년부터 미국과 유럽, 호주 등을 중심으로 원발성 및 전이성 간암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고,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사용 허가를 받아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.

박상일 의학원장은 "내년에 방사선의과학단지 내 수출용신행연구구가 완공되면 이트륨(Yttrium-90)을 포함해 방사성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"며 "부산 기장군이 비발전 방사선 분야의 허브로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,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,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, 동위원소융합 연구기반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

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20년 한수원 건강조사 우수협약병원 1위를 차지했다. 2011년부터 한수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검진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3천 명 이상 직원이 검진을 받았다. ❶



환자 부담 가장 낮은 병원
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모범

건강보험보장률 80.8% 전국 1위

[2021 경실련 전국 종합병원 건강보험부담 실태 조사]